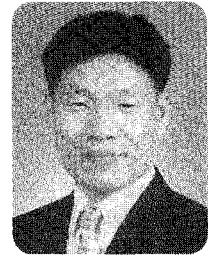


장성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을 마치고*



박 정 희
장성공공도서관 사서
pkjh21@korea.kr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관광버스에서 내리며 저마다 한 마디씩 건네는 인사를 받으며 행복했다. 이로써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성
황리에 종료되었다.

프로그램 홍보에 정신없이 뛰어다녀

8월 24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장성공공도서관과 함께하는 문학강연·탐방 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 사
업 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에 제출하고서 결과 발표를 기다리기까지 수험생 마냥 설레고 가슴 졸였다.

전단지를 만들고, 현수막을 걸고, 신문사와 각급기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아파트단지마다 전단지를 배포했
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상무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돌릴 때는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소나기가 쏟아져 비를 후줄근하게 맞아야 했
다. 성당 내 커피숍에도 전단을 붙이고 손님들에게도 행사 참여를 유도했다. 다시 생각해도 참 바쁘게 뛰어다녔다.

‘길 위의 인문학’ 국립중앙도서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인문학에 대한 올바른 사회의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 이 글은 9월 9일(목)자 장성군민신문과 9월 13일(월) 연흥군민신문에 게재된 글을 필자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아 망설임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사업에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에 응모하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지만 영 신통치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미흡한 점이 뭘까? 고민 고민하다 녹초가 되어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니 아내가 편잔이다. 봉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빨리 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휴가도 못가면서 고생을 사서 한다고. 틀린 말이 아니다. 별다른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피식 웃고 말았다.

사서(司書)는 '사서 고생하는 직업'

그러고 보니 올해 들어 국가기관 공모사업만 4번째다. 아내 말처럼 순전히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서하는 셈이다. '사서(司書)'라는 직업이 원래 '사서 고생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녀살종계 돌려대 본다. 비록 눈앞의 성과는 없더라도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 하고 싶다.

장성공공도서관! 비록 시골의 조그마한 도서관에 예산이나 직원 수는 적지만 의욕만큼은 여느 큰 도서관보다 앞서고 120%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 추진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강 하루 전! 2% 부족함을 느껴 휴관일이지만 출근을 했다. 우선 등록한 수강생에게 전화를 돌렸다. 대부분의 수강생은 내일 예정대로 참석할 것 같다. 장성교육청 장학사께 부탁해 참여할 만한 학부모를 추천받아 홍보를 했다. 또한 가장 만만한(?) 독서회와 꿈동이 동아리 회장에게도 수강생 참여를 독려했다. 그런 덕분인지 오후 늦게 참여 희망 신청서가 쇄도했다.

향수와 고향의 시인 정지용을 만나다

안현수 교수(호남대학교 국문과)의 혼을 실는 지도로 '시'와 '정지용 시인'을 주제로 3일 동안의 도서관 강연회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생활 속에 녹아있는 시와 시인', '인문학은 무엇인가?', 2일차에는 '감각적인 언어의 연금술사 정지용', 3일차에는 '한눈에 보는 대표작, 정지용의 고향과 가족관계' 등에 대해 공부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고향의 시인 정지용을 만나러 옥천을 탐방하였다. 오기는 차 안에서 맛깔스럽게 자작시를 읊어 주시던 송진 씨!, 중국어로 멋들어지게 노래를 불러 주시던 임경 씨!, 정지용 시인의 자제분과 얽힌 일화를 곁들여 시와 문학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신 최현 씨!, 능숙한 노래솜씨를 곁들인 안 교수의 멋진 진행은 최고의 여행임에 틀림이 없었다. 특산 음식인 도리뱅뱅에 생선국수를 먹고, 토속 막걸리까지 한 잔 들이키니 신선이 부럽지 않았다.

정지용 시인의 소박한 생가, 다니셨던 초등학교는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서 잠시 멈추게 하였고, 너나 할 것 없이 초등학교생의 마음이 되어 종도 쳐보고 양은 도시락도 만져보고 풍금도 쳐보면서 그때 그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에 흠뻑 빠져 보았다.

대청호숫가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시비공원의 각양각색 시비를 보면서 참가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문학소년·소녀로 돌아가 시인이 되어보기도 했다.

고향을 아끼고 문학을 사랑하는 향토자료전시관 관장의 열정적인 설명을 오래도록 기억에 간직하며, 대전의 성씨공원을 들러 장성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차창에 뿌리던 빗줄기는 피곤을 한꺼번에 씻어주었다. 비가 온다는 예보 때문에 걱정했는데 우리의 탐방을 격려하듯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날씨도 화창했다. 모든 게 다행스럽고 감사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다.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중심 역할 되새겨

사무실에 돌아와 하루를 돌아보니 몸이 천근만근이다. “앞으로는 더욱 장성공공도서관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피곤함이 말끔히 가셨다.

탐방 후기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린 김은숙 씨의 “인문학의 위기에 ‘길위의 인문학’ 이 해답입니다”, 조금미 씨의 “빠른 시일 내에 또 문학기행 보내주실 거죠?” 임경 씨의 “너무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등의 글귀를 보면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지역문화중심지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본연의 역할 수행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형언키 어려운 보람을 느낀다. 정리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느새 내년 프로그램을 그리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

